무안 거점고 이설공사 현장 토사 불법반입 의혹

무안군 허가 받지않고 타 지자체서 마구잡이 들여와

전남교육청 발주 공사 상주 감독 없어 부실시공 우려

전라도교육청 산하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이 발주하는 공사현장에 상주 감독이 없어 부실시공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무안거점고 이설공사현장에서는 무안군으로부터 허가도 받지않는 성토용 토사가 불법으로 반입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6일 무안군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군 허가 없이 인근 지역인 목포시와 함평군 등 5곳에서 무안거점고 이설조성사업장에 토사를 반입했다. 무안군 내 사업장에 다른 시·군 토사가 반입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토석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유·무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이 생략된 것이다.

성토용 토사는 반입 장소마다 감리단 감독관 입회 하에 국가공인 실험기관에 의뢰,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뒤 반입하도록 돼 있다. 또 성토다짐공사를 할 때는 공사현장 감독이 품질시험계획서와 실적확인서를 확인해야 하지만 무안거점고 이설조성사업에서는 이런 절차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안거점고 이설조성사업에 반입된 함평군의 토사는 농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목포시 아파트 공사 현장 2곳에서 유입된 토사도 반출내용허가 및 조건은 '성토용'이 아닌 '야적장'으로 작성돼 있었다.

설계내역서에서도 성토용 토사가 정식적으로 인·허가를 받지 않고 반입돼 감독기관이 업체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전남도 교육지원청 감리단 관계자는 "감리단직원 8명이 목포 등 전남 서부지역 11개 시·군을 관리감독을 하다 보니 서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두 원상복구하고 앞으로 철저한 감독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불법 토사반입이 관례로 돼 있어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농어촌 고교 경쟁력 향상을 위해 무안고, 현경고, 해제고를 무안고로 통폐합해 지역중심고로 육성할 예정으로, 무안거점고는 420억원의 예산을 투입돼 시설공사를 마치는 오는 2015년 개교할 예정이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목포 관광객 1000만 시대

시, 작년 전국 50여회 팸 투어 바탕 올 목표 세워

'新목포 8경' 선정…관광상품 개발 집중 홍보키로

목포시가 올해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관광 블로거, 수도권 중·고교 교장단, 한국관광공사 관계자, 언론인 등 다양한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50여회 팸 투어(시범관광)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도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잠재적 관광객을 모집할 방침이다.

'신(新) 목포 8경'을 새롭게 선정하는 등 목포만의 볼거리를 관광상품으로 개발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또 문화관광부 대표축제로 선정된 '해양문화축제'에 해상파시, 길거리공연 등을 포함시키고 목포 문학상, 목포문학축전을 수준 높은 전국 규모 대회로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목포 앞바다에 자리 잡은 '역사의 섬' 고하도에 6km 용오름 길을 만들고 국내 최초 육지면화 발상지를 기리기 위한 목화밭 체험장도 조성, 관광 상품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천연기념물 제500호로 지정된 갓바위 지역 기존 해상 보행교를 국립해양유물전시관까지 연장 설치하며, 춤추는 바다 분수 기능을 지속 보강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목포 대표 수산물인 조기, 먹갈치 등과 목포에서만 맛볼 수 있는 5미(세발낙지, 홍탁 삼합, 민어회, 갈치찜, 꽃게무침)를 소포장 판매하는 등 차별화된 관광상품 전략도 세웠다.

정종득 시장은 "올해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열도록 기존의 관광자원과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 동북아 해양관광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신항 석탄부두 운영사

해양청, CJ대한통운 선정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남광률)은 6일 "목포신항 석탄부두의 운영시설 사업시행자로 CJ대한통운(주)(대표 이채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삼학도 석탄부두를 목포신항으로 이전하고 있는 목포항만청은 국가재정으로 건설되는 안벽(240m)구간을 제외한 저장창고 등의 운영시설을 민간자본으로 조성하고 부두 운영까지 위탁하기 위해 상부 운영시설 사업시행자 공모를 추진한 바 있다.

목포신항 석탄부두 상부 운영시설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CJ대한통운(주)는 총 사업비 378억원을 투입해 하역부터 이송·저장·운송까지 전 과정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최첨단 밀폐식 친환경 운영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가 결정된 석탄부두 상부 운영시설 설치공사는 2014년 상반기에 착공돼 2015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며, 2016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신안 압해도 갯벌 굴 채취 6일 오전 신안군 압해도 아낙들이 갯벌에서 굴을 채취하고 있다. 군은 굴 판로 개척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일간 압해도에서 '신안 굴 축제'를 개최한다. 〈신안군 제공〉

■ 새얼굴

"지역개발 농어업인 소득 향상 최선"

최 오 남 농어촌공사 해남지사장

"농어촌을 둘러싼 국내·외 어려운 현실을 지역개발에 적극 반영해 농어업인에게 소득과 희망을 주는 일등 공기업으로써 농어업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일 취임한 최오남(51)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장의 취임 일성이다. 최 지사장은 신안 출신으로 전남대를 졸업하고 지난 89년 입사해 해남지사 지역개발부장, 무안·신안지사 지역개발부장 등을 역임했다.

최 지사장은 조직 내에서 온화한 성품과 탁월한 친화력으로 업무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전북

순창 농가소득 증대

올해 698억원 투입

순창군이 농가소득증대 사업과 관련 지난해보다 38억원이 늘어난 69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6일 군에 따르면 친환경분야에 293억원, 특화작목 발굴육성 61억원, 장류원료 생산지원 20억원, 귀농귀촌 분야 12억원 등을 투입하기로 했다.

군은 올해 모든 소득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주요사업별 세부지침을 마련, 조만간 읍면에 시달하고 영농교육과 함께 본격적인 소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100억원이 투입되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2월말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 지역민의 의지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 벼 핵심 재배단지를 육성하고, 일반작물 분야 소득사업의 경우에도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와 다수농가 수혜사업 등에 대해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남원시 국가예산 4000억 확보…성장동력 기틀 마련

국비보조금 1611억·SOC 분야 2263억 포함

각종 사회 인프라 사업 등 차질없이 추진 가능

남원시가 올해 4000억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국비 보조사업은 물론 각종 사회 인프라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본격적인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남원시 국비보조금 1611억원, 국토관리청과 도로공사의 SOC분야 주요사업에 2263억원, 농어촌공사의 시 관련 사업 154억원을 등을 포함한 2014년 예산을 수립했다.

시는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50개 중점관리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 39개 사업에 국비 655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둬 지난해 대비 24%포인트 늘어난 128억원을 증액했다.

특히 국회심의단계에서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친화장품클러스터조성사업(200억원)과 장수 번암우회국도건설(735억원) 등 SOC분야 신규사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올해 예산 국비 25억원을 마련했다.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노암 제3농공단지에 집적화 단지를 만들어 20개 업체의 화장품업체를 유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송죽화장품 등 4개업체가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올해 국비 10억원을 지원받아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의 남원관련 SOC주요사업인 88고속국도 확장 공사와 남원~곡성 간, 옥과~적성 간, 오수~월락도로에 2263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88고속국도 확장공사가 2015년에 준공되면 남원의 기업유치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魔의 금요일' 운전 조심

교통사고 가장많이 발생

2013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금요일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모두 9453건이 발생, 365명이 사망하고 1만4949명이 부상했다.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요일은 금요일로 모두 1499건(15.9%)을 차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안전운전 불이행이 50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1079건, 교차로통행 위반 956건, 중앙선침범 619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주=강철수 기자knews@

겨울진객 가창오리 최근 겨울 철새인 가창오리 떼 수만마리가 고창군 흥덕면과 성내면에 걸쳐있는 동림저수지를 찾았다. 지난 5일 동림저수지 가창오리 군무를 찍기 위해 300여명의 사진작가들이 전국에서 몰려든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군 제공〉

단신

'순창힐링교육센터' 내달부터 운영

순창군은 7일부터 원광대와 함께 순창의 좋은 물과 나노버블 기술로 아토피 등 만성질환의 치유와 예방 관리하는 '순창힐링교육센터'를 운영한다.

순창힐링교육센터는 인계면 쌍암리에 위치한 순창군건강장수연구소에 나노버블수소수 입욕과 아토피팩 체험·교육장 시설을 갖추고, 아토피와 같은 만성질환의 치유와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차 체험프로그램 일정은 2월13일까지 6주간으로, 아토피질환자 10명, 정위치유대상 15명(턱관절 균형을 통한 근골격, 자세교정)이 참여할 예정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남원보건소,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위생점검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설을 맞아 안전한 식품 공급과 위생적인 유통을 위한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와 판매업소 등에 대해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기간은 6일부터 24일까지로, 점검대상은 설 명절에 소비되는 떡류,두부, 묵, 한과, 다류제품과 꿀, 인삼, 홍삼식품을 제조하는 관내 업체와 휴게소, 여객터미널,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있는 식품판매업소다. 점검사항은 ▲무신고·무표시 제품을 식품에 사용 여부 ▲식품취급기준 준수여부 ▲유통기한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군산해경, 지난해 해상범죄 단속 10건 적발

군산해양경찰서는 6일 "지난해 12월부터 연말연시 해상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불법어업 3건, 선급금 사기 2건, 폭력 2건, 지명수배 2건, 선박 경유 절도 1건 등이다.

해경은 이 기간에 경찰 200명과 경비함정 5척을 동원해 대대적인 해·육상 입체 단속활동을 펼쳤다.

송일종 군산해경서장은 "내국인 선원 부족 현상이 심해지면서 선급금 사기가 계속되는 등 고질적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기자 · 전북취재본부장

전주시 '선비와 길을 걷다' 리플렛 제작·배포

전주시는 6일 '선비와 길을 걷다' 리플렛을 지역 내 각종 문화시설 및 관광안내소 등에 제작·배포했다. 리플렛은 인물별로 총 10종으로 제작됐다.

시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전주 정신의 근간을 마련한 선비들을 조명하고 그들에 대한 정신과 철학을 소개하기 위해 리플렛을 제작했다.

리플렛에 담긴 인물은 월당 최담, 만암 이상진, 목산 이기경, 간재 전우, 금재 최병심, 고재 이병은, 유재 송기면, 면와 이도형, 석전 황욱, 강암 송성용 등 전주의 대표 선비들이다.

/전주=강철수 기자knews@